

AGING ISSUE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브리프

Vol. **01**
2025 March
창간호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Vol. **01**
2025 March
창간호

AGING ISSUE

시민과 소통하는 정책브리프



CONTENTS

- 04 발간사
박정숙 센터장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인천광역시노후준비지원센터)

연구 성과 공유

- 05 「인천시 노인의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조사」
- 양지훈 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현)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개요
 - 연구 결과 (영역별 노후생활 실태)
 - 정책제언

주목! 이슈

- 11 노년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정책과 삶

- 13 노후준비정책과 사업
- 정부의 제2차 노후준비 지원계획
 - 인천의 노후준비 특화프로그램

정보의 샘

- 15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One-Stop 노후준비서비스
- 인천광역시노후준비협의체 운영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장 박정숙
발행처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제작부서 정책연구팀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홈페이지 www.inlife.or.kr
디자인 덕신인쇄



“시민이 체감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연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센터장 박정숙입니다.

센터는 2017년 12월 개소이후 예비노인세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꾸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천시민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개소 당시 약 34만 5천여 명이었던 인천시 노인인구는 2025년 2월 말 기준 54만 여 명으로 56.5%가 증가하였으며, 노령화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센터는 지난해 10월, 인천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되면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앞서나가기 위한 전략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브리프 발간 또한 그의 일환으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증거기반의 정책정보를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선제적 정책발굴을 통해 지속적인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면서 보다 수준 높은 증거기반의 정책연구가 가능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인천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박정숙** 센터장



01

2024년 연구 성과 공유

인천시 노인의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조사

양지훈 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 현)인천연구원 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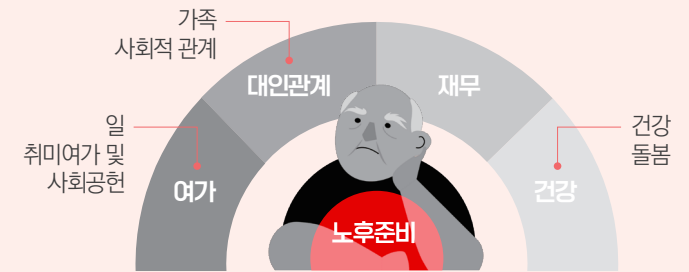
개요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현재 노후준비는 주로 노인 빈곤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 준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노년기 행복한 삶을 위하여 경제적 준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노후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노인들의 노후준비 경험과 현재 생활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노후준비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만 60세부터 만 74세까지의 인천시민 619명을 대상으로, 2024년 5~6월 간 대면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노후생활실태,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정책 욕구의 네 영역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노후준비 영역



노후준비 영역은 2015년에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에 의거하여 크게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로 구분됨

- 재무 : 돈 쓸 용도가 자신의 처지와 욕구에 맞는지 점검
- 건강 :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 형성 및 질병 예방
- 여가 : 긴 여가시간을 부담스럽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활동 준비
- 대인관계 : 가족 및 주변인과 친밀하고 다양한 관계 형성·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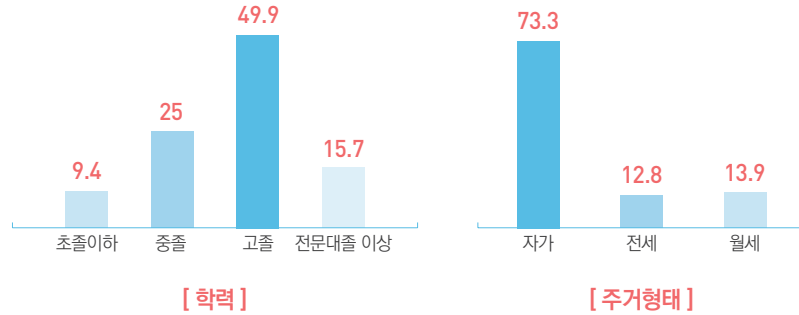
※ 본 조사에서는 네 영역을 더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재무, 건강, 돌봄, 일,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 가족, 대인적 관계로 조사함

연구 결과

영역별 노후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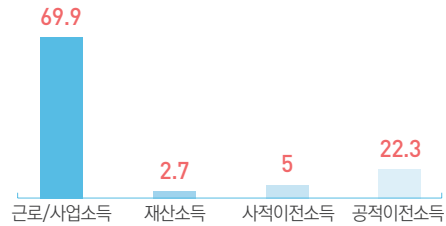
[일반적 특성]

조사 참여자는 고학력 노인의 비율이 높고, 주거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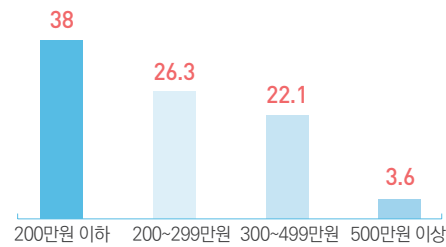


[영역별 노후생활 실태]

재무 노년기 소득을 위해 약 70%가 일을 하고 있으며, 식비와 주거 관리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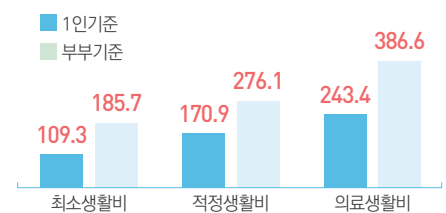


▶ 노인가구의 69.9%는 본인과 배우자의 노동을 통해 가구소득을 얻었다. 노년기에 소득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 실제 월평균 가구 소비지출은 평균 211만원이며, 구간별로는 200만원 이하가 38.0%로 가장 높았다.

▶ 생활비 중 부담이 높은 항목은 식비(89.8%), 주거관리비(86.1%), 보건 의료비(45.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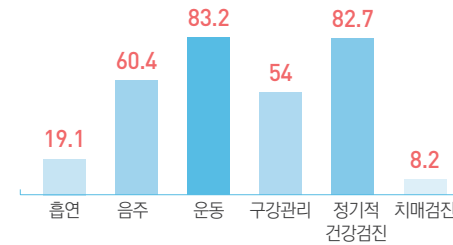


▶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최소생활비, 건강할 때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생활비, 간병/의료비가 증가할 때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 생활비는 가구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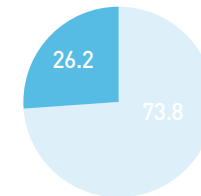


건강

대부분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는 편으로 나타남



- ▶ 응답자 중 49.4%는 건강하다, 29.2%는 보통이다. 21.4%는 불건강하다고 평가했다.
- ▶ 음주율이 다소 높지만, 대부분 건강한 생활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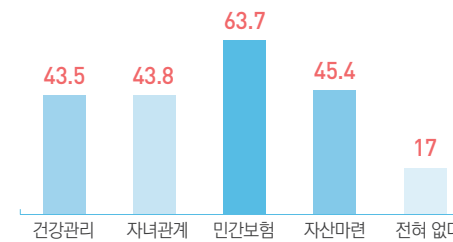


- ▶ 73.8%는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었다.
- ▶ 다수가 가진 질환은 고혈압(48.1%), 고지혈증(38.4%), 당뇨병(22.9%) 등이며, 평균 56.8세 때 처음 앓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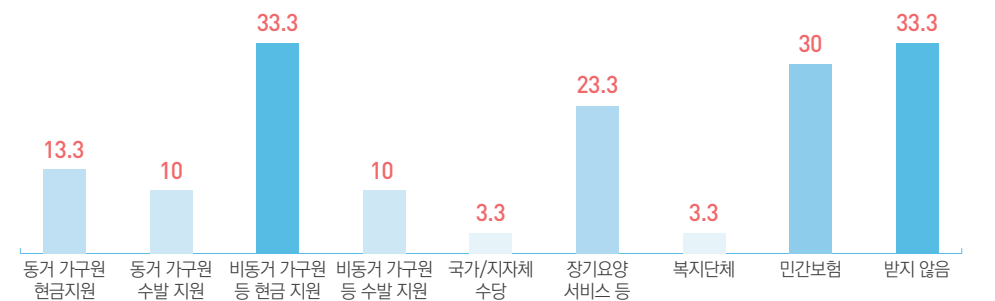


돌봄

돌봄을 대비해 대부분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비동거 가구원의 현금 지원을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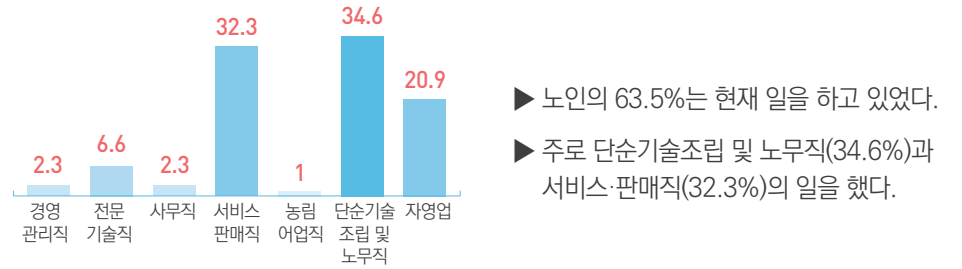


- ▶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위해 개인적 준비로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비율도 17.0%에 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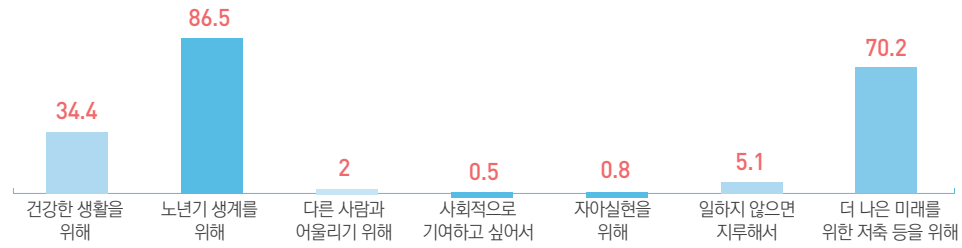


- ▶ 조사 대상 중 가족 돌봄 노인은 4.8%이며, 과반은 부모님을 돌보고 있다.
- ▶ 가족 돌봄 노인은 비동거 가구의 현금 지원을 받거나 지원이 없다는 응답이 각각 33.3%로 가장 높다.

일 | 과반의 노인은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고, 다수가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과 서비스 판매직으로 종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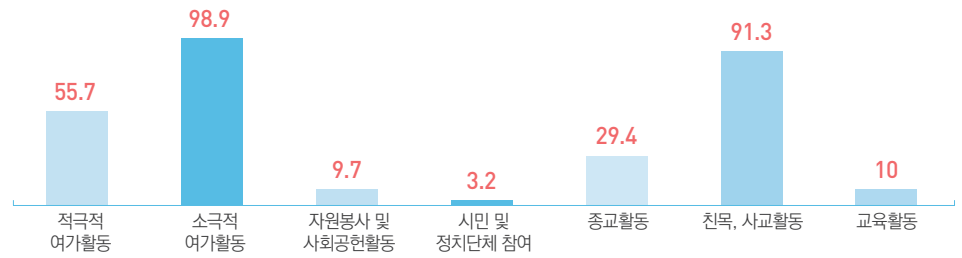


- ▶ 노인의 63.5%는 현재 일을 하고 있었다.
- ▶ 주로 단순기술조립 및 노무직(34.6%)과 서비스·판매직(32.3%)의 일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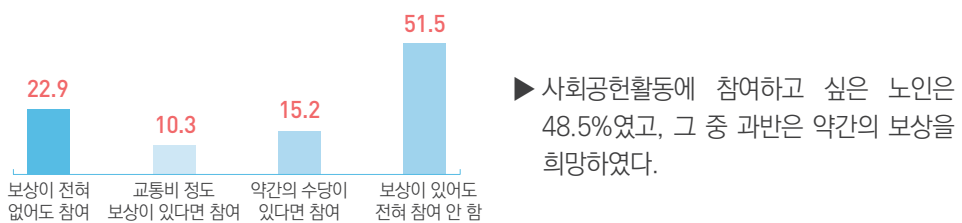


▶ 일하는 노인의 대부분은 경제적 이유(노년기 생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저축)로 일하고 있었다.

여가 | 노년기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편이나 집 밖의 적극적 활동을 하는 비율은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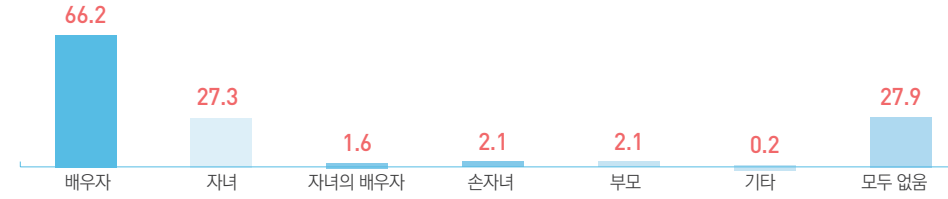


▶ 대부분의 노인은 가족 및 친지 방문, 계모임, 동창회 등의 친목·사교활동(91.3%)과 TV 시청, 낚잡, 산책 및 걷기 등의 소극적 여가활동(98.3%)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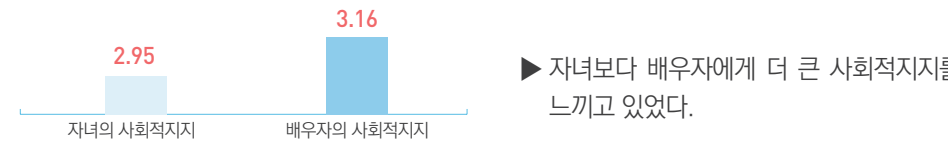


▶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싶은 노인은 48.5%였고, 그 중 과반은 약간의 보상을 희망하였다.

가족 | 배우자의 동거 비율이 높고 사회적지지가 높아서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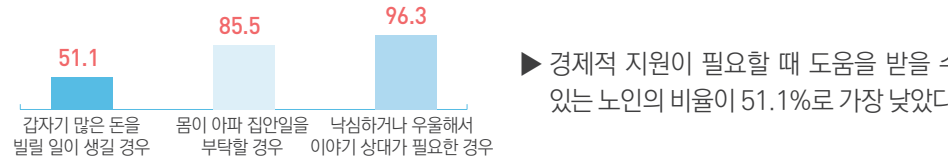


- ▶ 과반은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혼자 살고 있는 노인도 27.9%로 나타났다.
- ▶ 비동거 가구원을 포함하여 가족이 전혀 없고,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5.2%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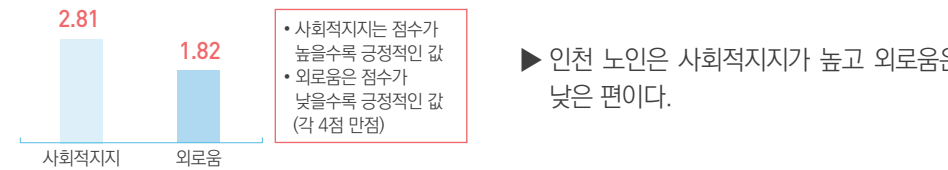


▶ 자녀보다 배우자에게 더 큰 사회적지지를 느끼고 있었다.

대인 관계 | 사회관계망과 사회적지지가 높은 편이고, 외로움을 적게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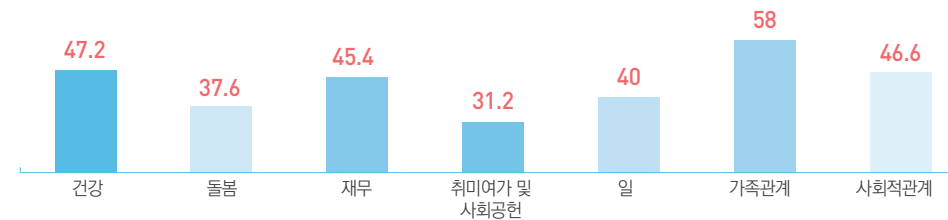
▶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의 비율이 51.1%로 가장 낮았다.



• 사회적지지는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값
• 외로움은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값 (각 4점 만점)

▶ 인천 노인은 사회적지지가 높고 외로움은 낮은 편이다.

노후 준비 | 가족관계를 제외한 전 영역에서 노후를 준비한 노인은 절반 이하에 불과하였음



- ▶ 가족관계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절반 이상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
- ▶ 특히 돌봄(37.6%)과 취미·여가 및 사회공헌(31.2%)을 준비한 노인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

정책제언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은 시민 욕구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후준비 영역 중 재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다른 영역들 또한 잘 준비하지 못한 편이었다. 노후준비를 위한 대표적인 공적 전달체계인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예산, 인력 등이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노후준비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수 없으므로 관계 기관과 연계한 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하여 노후준비 실천을 돕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준비협의체는 노후준비와 관련된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기관 또는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구 등을 포함하여 구성된다.

[1인가구 준비를 위한 특화서비스 개발]

노인 1인가구는 생활 전반에서 다른 가구유형보다 취약하고, 노후준비 욕구는 높았지만 잘 준비하지 못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비혼 집단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여 현재 1인가구 및 사별, 이혼 등으로 1인가구가 되는 사례에 대한 지원을 특화서비스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보면 사별 이후 발생한 부정적 감정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자녀 독립과 사별로 거주지를 자녀 근처지로 옮기면서 사회적 관계 또한 단절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현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노인 1인가구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생활실천 기반 상담 프로토콜 제공]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예비노인세대의 행동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진단과 서비스 제공 연계 사이에서 수행목표를 수립하고 단기 및 장기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건강, 재무, 일, 돌봄 영역은 누구나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노후준비를 넘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대일의 노후준비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가구유형, 혼인상태, 연령 등을 조합하여 상담 대상 유형을 구체화하고, 각 영역별로 자신과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진단-상담-교육-서비스 연계의 프로세스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담을 수 있는 상담사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02

주목! 이슈

노년기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5060세대 남성의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에는 청년 고독사까지 확산되면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고립예방센터'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24년에는 돌봄고독정책관을 신설하였다. 주목! 이슈에서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노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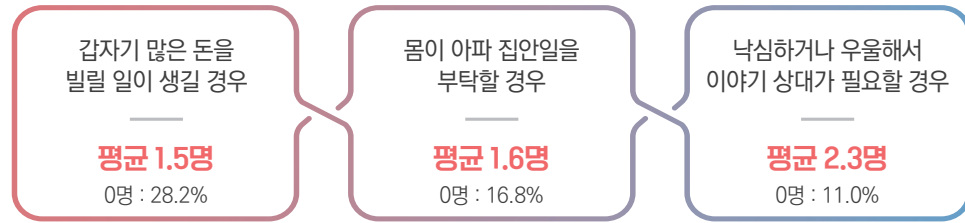
국내에서 고립감을 측정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Emotijnal/Social aspects of Loneliness and Isolation[ESLI](Vincenzi & Grabosky, 1987)는 고립감과 외로움, 정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정의한다. 이 개념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은 연관성이 높지만 고립감은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평가한 것이며, 외로움은 박탈감, 지각된 고립상태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있지만(객관적 사실) 사이가 좋지 않거나 교류가 없어 친구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느낌). 정서적 관점은 사회관계망에서의 친밀감과 애착을 느끼는 정도이며, 사회적 관점은 사회통합과 가치의 확신에 대한 것으로 사회구조에 편입되어 있음을 느끼고 개인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표] ESLI의 범주화

구분	고립감 :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평가	외로움 : 박탈감, 지각된 고립 상태에 대한 반응
정서적 : 사회관계망에서의 친밀감과 애착	정서적 고립감 (예: 나는 친밀한 친구가 없다)	정서적 외로움 (예: 나는 친밀한 친구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사회적 : 사회통합과 가치의 확신	사회적 고립감 (예: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일부가 아니다)	사회적 외로움 (예: 나는 사회집단이나 조직의 일부라고 느끼지 않는다)

인천 50+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어떠한가. 아래 그림과 같이 사회관계망을 보면, 10명 중 3명의 노인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도움이나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또한 각각 16.8%, 11.0%의 노인은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 사회적 고립감은 4점 만점 중 1.87점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미혼·비혼, 남동구와 부평구 거주자, 중졸 이하, 1인가구, 경제활동 미참여, 가구소득 300만원 이하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높게 느끼고 있었다.



[그림1] 인천시 예비노인세대의 사회관계망(2022)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노년기는 사회적 고립도가 증가하고 가족관계의 만족이 감소하여 사회관계망이 약해지는 시기이며, 독거노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람들과 어울리는 집 밖 활동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고령자고용지원금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확대,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정책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인천시 노인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은 63.5%에 달하지만 적극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은 55.7%,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활동 참여는 9.7%, 교육활동은 10.0%였다. 일 이외에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더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2024년에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감소하고자 ‘즐거운 노년을 위한 가드닝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인가구 또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위험 지수가 높은 노인을 대상으로 총 6회기의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을 참여할수록 교육시간에 도착하는 시간이 빨라졌으며, 모든 참여자가 전체 회기에 출석하였다. 긍정적인 집단 역동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로 자리를 바꿔 앉거나 먼저 인사하는 모습, 작품 사진을 촬영하여 공유하는 모습, 식물기르기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만든 작품을 주변인들과 나누면서 이어나 수술로 관계가 단절된 친구와 다시 연결된 케이스도 보고되었다.



시민 모두가 외롭지 않은 노년을 위하여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 50+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감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생애설계 및 일반 상담,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2경력개발교육, 사회공헌단, 커뮤니티 활동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노후준비영역 중 대인관계 영역에 대한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

주) 본 글은 인천시 예비노인세대 실태 및 욕구조사(양지훈, 2022), 노인의 적극적 여가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개발(양지훈·장은미, 2024), 인천시 노인의 노후준비 인식과 경험 조사(양지훈, 2024)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3 정책과 삶

정부의 제2차 노후준비 지원계획

노후준비 정책과 사업

우리나라는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여 2016년부터 5개년 노후준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2차 노후준비 지원계획의 주요내용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이 보편화 되도록 전달체계 정비,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창출이다.

1) 지자체 중심의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제에서 광역·기초단체로 전달체계를 확대하여 폭넓은 노후준비 기반을 마련한다. 노후준비지원센터는 중앙·광역·지역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서비스 제공주체별 역할〉

중앙센터(국민연금공단)	광역센터	지역센터
서비스 제공자 양성·관리 노후준비서비스 조사·연구·교육 노후준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서비스 홍보 및 사업수행평가	지역특화서비스 프로그램 개발·보급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노후준비 인식제고 광역노후준비협의체 운영지원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제고 노후준비지원 필요사업 지역노후준비협의체 운영지원

2) 맞춤형 노후준비 진단지표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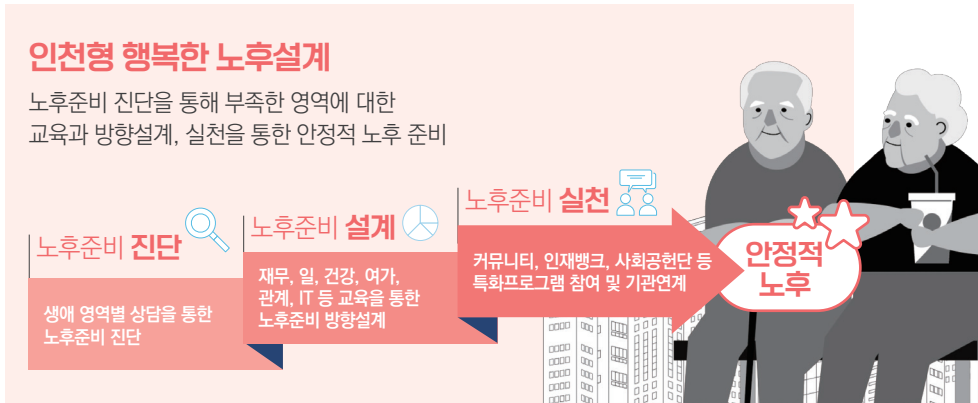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4대 영역별 진단지표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개선하고, 노후준비 활성화를 위해 간편상담용 진단지표를 마련한다. 또한 현장 상담 참여율이 높은 은퇴준비기, 사회초년생 순으로 노후준비 콘텐츠도 개발한다.

3) 노후준비서비스 분야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정책에 맞춰 유사직종 퇴직자를 활용한 민간강사 선발 및 교육을 실시하고, 양성된 상담사·민간강사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인천의 노후준비 특화프로그램

인천광역시시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광역시고령사회대응센터와 국민연금공단(남동 연수 지사)를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인천시민의 행복한 노년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노후준비지원센터(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인식 확산 등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 실천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한다.

1)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회공헌·봉사활동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의 활성화로 신중년세대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팀을 모집·선정하여 활동비, 역량강화교육, 활동공간, 수요처 연계 등을 지원한다.

2) 노후준비 전문인력 양성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향후 광역·지역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5년 운영과정 : 노후준비상담사, 여가영역 노후준비강사, 재무영역 노후준비강사

3) 사회공헌단

신중년세대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자 다양한 영역의 인재를 발굴하여 사회공헌단을 구성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 2025년 추진프로그램 : 노후준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사회공헌단을 구성, 찾아가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 추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인천광역시노후준비지원센터) 032-715-5491

04 정보의 샘 04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One-Stop 노후준비서비스

인천광역시 노후준비 협의체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노후준비지원센터(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는 인천시민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후준비서비스(5대영역_재무, 일자리, 건강, 여가, 관계)를 제공하기 위해 18개의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노후준비 진단 및 상담 이후, 심층상담 및 해당 영역 서비스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아래의 협의체 기관과 직접 연계되어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역	기관명	연계서비스
재무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 금융교육, 재무상담(1:1재무컨설팅) · 찾아가는 상담, 채무상담, 조정지원 등
	인천도시공사 (광역주거복지센터)	· 전세임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 i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연계
	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 법적분쟁, 금전채권 피해예방, 민사소송지원 · 생활법률, 소송 등 상담 지원
일자리	노사발전재단 인천중장년내일센터	· 구직상담 · 구직자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프로그램(심리지원 등)
	인천광역시노인인력개발센터	· 노인인력지원사업, 사회공헌형,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등 다양한 일자리 연계 및 상담
건강	인천의료원	· 건강관리(건강정보제공, 균형 식생활, 자가건강체크 등) · 7대 암 예방, 예방접종 등 교육지원
	인천척척자병원	· 건강관리(건강정보제공, 균형 식생활, 자가건강체크 등) · 7대 암 예방, 예방접종, 노년기 체력증진 등 교육지원
	인천광역시치매센터	· 치매진단, 상담, 프로그램 연계 · 치매극복프로그램 지원, 치매환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협력
	인천광역시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건강 위기상담, 스트레스 검진 및 상담 · 재난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심리지원사업
	동구체력인증센터	· 신체구성검사,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여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 시민대학(신중년직업교육, 전문대학연계), 평생교육기관 안내 · 성인진로교육 개발 연계, 평생교육기관 지원
	인천광역시노인종합문화회관	· 노인여가복지프로그램 안내 및 상담 · 생활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체육회	· 노후준비건강교실 체육동호회 참여 상담 · 체육시설 지원, 체육동호회 운영 지원 협력
	한국스포츠택지진흥원	· 체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상담 및 안내 · 파크골프 대중보급지원 · 신규회원 강습 지원
	인천관광공사	· 인천관광, 여가 상담(관광지 추천, 코스 소개 등)
	인천관광협회	· 인천시 관광안내 및 상담 · 취약계층 여행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대인관계	미추홀구 가족센터	· 가족관계 증진 상담,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어르신 우울증 등 상담지원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 활동 상담, 모집 및 홍보 · 자원봉사자 제공, 봉사활동 연계 등



 인천광역시 고령사회대응센터

